

# 일자리 창출·수출 지원...혁신 이끄는 '전남경제 대들보'

## 첨단미래산업 선봉 전남테크노파크

전국 17개 시도 19개 테크노파크(TP) 가운데 지난해 정부 평가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한 곳은 전남 TP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산업육성사업평가, 기관 경영평가, 산업기술단지거점기능강화 사업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지원단육성지원 사업평가 등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연구소, 대학, 산업체 등에 규모나 분포면에서 절대적으로 취약한 전남이 각종 평가에서 4관왕을 차지한 이유는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고, 단계별 뚜렷한 성과를 내며, 지역 첨단산업 생태계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주관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직 고위관료 출신인 다른 TP 원장들이 전남 TP를 모범 모델로 삼으면서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높아졌다.



전남테크노파크 전경.

지난 2018년 10월 취임한 유동국 전남TP 원장은 이미 광주TP 원장(2010~2015)을 역임한 첨단산업 경영·운용 전문가로, 전남의 기간산업, 미래산업 등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100대 과제를 선정해 전남 TP를 이끌었다. 그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45개 과제는 담당 직원·팀장과 원장이 함께 추진 내용을 점검하고 매주 진척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전남 TP에서 전남의 기간·첨단산업 현장을 파악해 정책·사업을 고안하고, 전남도 및 정부 부처와 협의한 뒤 이를 다시 연구기관·대학·산업체와 업무 분배·협업하는 시스템이 정착된 것도 큰 변화 중 하나다.

이러한 조직 내부 혁신과 지역산업 생태계의 긴밀한 연계는 성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 평가는 물론 '2019전라남도 일자리 투자유치 한마당'에서 22개 기업 475억원 투자 유치, 청년 일자리 335개 창출 등의 실적을 거뒀다. 에너지신산업과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뒷받침하고, 스마트공장 보급률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초 구축한 44개 전남테크노파크 해외비즈니스센터들 통해 지역 수출회망 중소기업이 2353만 달러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했으며, Post-Bi 기업 28개사, 스타기업 31개사, 강소기업 36개사, 월드클래스 2개사를 선정하는 등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육성 정책으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다.

전남 미래성장동력 신산업 발굴을 위해 성장동력 위원회를 구성, 연구기관·대학·기업과 함께 23건의

중소벤처기업부·정보통신부 등 지난해 중앙정부기관 평가 4관왕 전국 최고 테크노파크 자리매김

산학연 업무 분배·협업 시스템 지난해 475억 유치·일자리 335개 스마트 공장 보급률 전국 1위 성과

신산업 발굴 성장동력위원회 가동 대학·기업과 23개 과제 수행

기업 인력·연구·지식재산 지원도

과제를 공동 기획 및 추진하고, 10차례의 정책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협업 분위기를 정착시킨 것도 큰 성과다. 전남 TP가 주도해 도내 주요산업 뿌리산업·기계가공·고분자·조선·세라믹·레이저가공·에너지신산업·바이오헬스케어·드론·자동차튜닝·e-모빌리티 등 12개 부문 276개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전남 지역산

업 진흥계획에 반영하는 '상향식'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전남 TP는 올해 전남도 관련 주요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점 투자 방향을 제시, 지역 내 산업 생태계 구축,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담은 지역발전 로드맵 제시를 제1과제로 추진중이다. 지역산업진흥협의회, 미래성장동력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정책토론회, 산업별 기업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를 구성해 전남의 신성장 동력 마련, 2020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대형 예비타당성 과제 및 단위사업 발굴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기업 지원 통합 플랫폼도 구축중이며, 전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연구 장비, 지식재산, 자원 등을 정리해 기업 맞춤형 지원메뉴얼을 마련, 장기적으로 산업현장 맞춤형 기업지원 총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정책수립 ▲여수 스마트화확산단 추진 ▲전남 소재·부품 중장기 발전 대책 2030추진 ▲전남 규제자유특구 실무지원단 운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도 핵심 업무로 분류돼 있다.

전남 TP는 전남도와 함께 '4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 유치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사광가속기가 지역 미래첨단산업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에너지밸리와 한전전공대를 연계한 세계적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인 전남은 호남권의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첨단 소재부품, 에너지, 바이오신약, AI, 자동차 등 핵심산업 육성과 기초과학 진흥을 위해 방사광가속기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남 나주에 들어서야할 논리를 개발하고, 연구 기관 및 기업 등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부처에 전달하고 있다.

전남 TP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출범한 전남 TP가 민선 7기와 출범, 현 원장의 취임 등을 계기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테크노파크로 자리매김 할만큼 역량을 축적했다"며 "앞으로 한전전공대, 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연구기관 및 시설의 설치, 이를 통한 미래첨단기업들의 유치 및 투자가 이어져 지역산업생태계가 전 세계적인 모범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에너지 산업 전남은 생산, 광주는 축적 특화 정부 공모 전략적 대처...시너지 효과 내야”

### 유동국 전남 테크노파크 원장

“방사광 가속기 나주에 들어서야”  
“20년후 전남 산업생태계 에너지·바이오 등 비중 커질 것”

유동국 전남 테크노파크 원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광주테크노파크를 이끌고 2018년 10월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테크노파크 경력만 8년이다. 광주 테크노파크 제5·6대 원장 당시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역산업진흥유공기관으로 잇따라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낸 그는 전남 테크노파크에서도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전남의 연구·개발시설, 산업 기반 등이 열악하다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다른 테크노파크보다 앞선 정책과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 현장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역산업생태계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원장실에는 유 원장이 취임한 뒤 직원들과 함께 선정한 100대 과제 중 핵심인 45개 과제의 현황판이 있다. 직원들이 언제든 원장실에 들어와 과제에 대해 상의하고 현황판에 현재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다. 진척 상황을 누구나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모든 외부 회의에서 발표를 팀장과 직원에게 맡기고 있다. 직원·팀장의 업무 능력이 외부 발표를 통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남 테크노파크 원장에 취임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나.

▲외형적인 지표로만 보면 전국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다. 각종 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직원들과 호흡을 맞춰 비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고 볼 수 있다. 서로의 업무 스타일을 익히고, 주요 사업 내용 및 콘텐츠에 대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긴밀한 외부 소통을 통해 지자체나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생산하고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간이 갖춰졌다. 이제 속도를 내면 될 것이라고 본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방사광가속기를 쉽게 말하면 산업 부문의 엑스레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방사광을 통해 확인하고 다양한 산업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가속기로 인해 관련 산업이 유발되기도 하는데, 모두 우리나라 중부와 동부에만 치우쳐 있다. 당연히 이번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전남 나주에 들어서야 하며, 이를 통해 과학에서 비즈니스로의 과정이 크게 단축될 것이다.

◇첨단산업 부문에서 광주와 전남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이 지난 14일 100대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미래첨단과학 관련 대규모 사업 및 프로젝트가 탐 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구역 중심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정부 공모에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에너지 산업에 예로 들면 전남은 에너지 소재 및 생산과 관련된 산업을, 광주는 에너지 소비와 축적과 관련된 산업을 각각 맡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바이오, 생체 등의 사업 역시 전남은 소재를, 광주는 가공을 각각 주력으로 한다면 시너지가 클 것이다.

◇2040년 전남 산업생태계를 그려본다면.

▲산업생태계가 구축돼 지역의 역량과 능력으로 최대치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Plan(계획) Do(실행) See(평가)'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20년 뒤를 생각해본다면 지역 내 총생산(GRDP) 120조원 중 90조원을 책임지고 있는 여수석유화학단지과 광양제철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대신 미래신산업인 에너지, 바이오, 미래운송기기, 이모빌리티 등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물론 기간산업은 새로운 혁신 동력을 찾아 경쟁력을 회복하고, 전남의 강점인 소재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전남의 산업경제 정책의 파트너는 기업이며, 전남 테크노파크는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지원할 것이다. 전남의 경제 발전과 기업성장의 해답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기업현장을 발로 찾아가고 문제 해결의 솔루션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혁신과 소통 그리고 속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기업중심, 기술중심, 시장중심, 현장중심, 성과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기업이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2019 일자리 투자유치 한마당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남테크노파크.



# 2020 하늘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남원' 드론 공모전

**공모주제** 하늘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남원을 찾아보자

**접수기간** 2020. 10. 5.(월) ~ 2020. 10. 16.(금) 18:00까지

**응모자격** 모든 국민(개인이나 2인이내의 팀)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 (hijins@korea.kr)

**작품기준** 2020년 남원시를 촬영한 드론 촬영 영상/사진

**출품수량** 1인당 각각 1작품 이내 미발표작

드론영상 30초이상 1분이내 편집 MP4 영상 파일  
1,920 x 1,080 30p(Full HD)

드론사진 긴폭의 사이즈가 3,000픽셀 이상의 JPG 파일

**결과발표** 2020. 10. 30.(금) 예정 / 시청 홈페이지 게시

**시상내역**

| 구분  | 작품 수     | 시상내역      |
|-----|----------|-----------|
| 영 상 | 대상       | 1 300만원   |
|     | 최우수상     | 1 150만원   |
|     | 우수상      | 1 100만원   |
|     | 계절상      | 3 각 100만원 |
| 사 진 | 입선       | 5 각 30만원  |
|     | 대상       | 1 100만원   |
|     | 최우수상     | 2 각 80만원  |
|     | 우수상      | 2 각 50만원  |
| 입선  | 7 각 20만원 |           |

※계절상(겨울, 봄, 여름) 별도 시상

문의 ☎063-620-6044 세부사항은 홈페이지(www.namwon.go.kr) 공모요강 참조

